

《좀머 씨 이야기》로 보는 책의 운명

‘연보랏빛’ 좀머 씨와 ‘연분홍빛’ 좀머 씨

글_박중서(번역가)

저작권회사에 근무할 때 보면 종종 ‘신생 출판사’ 라며 에이전시로 찾아와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책을 찾는 데요 … 그러니까 … 남녀노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 … 따뜻한 느낌을 주고 … 약간은 특이한 소재에다가 … 문화적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진 않고 … 분량도 짧아서 부담이 없으면서 … 삽화도 예쁘장하니 들어 있고 … 그래도 계약금이 너무 세진 않으면서 … 좀 꾸준히 팔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 …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이쯤 되면 나도 잘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 《좀머 씨》 같은 책 말씀이시죠?” 그러면 십중팔구는 마치 가려운 데를 대신 긁어주어 고맙다는 듯, 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을 대신 해주어 감사하다는 듯 얼른 맞장구쳤다. “아 … 예 … 뭐 … 굳이 말하자면 … 그렇죠 … 《좀머 씨》 같은 책이요.”

지금은 저작권 쪽 현장을 떠난 지 한참이니 과연 어떤 책이 ‘표준’ 일지 모르겠다. 어쩌면 “다빈치 같은 책”이나 “마시멜로 같은 책”들을 내놓으라고 성화는 아닐까. 하지만 적어도 내가 현장에 있었을 때까지의 대세는 “해리 포터 같은 책” 아니면 “좀머 씨 같은 책”이었고 – 물론 두 권 모두 내가 있던 에이전시에서 중개한 책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 중에서도 후자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좀머 씨》 같은 책이 흔치는 않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끈질기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 “그래도 … 혹시 … 어디 … 없을까요?” 그러면 나도 대놓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글쎄요, 그런 책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물론 어디까지나 농담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뼈가 들어 있었다. 즉 대부분의 베스트셀러, 또는 스테디셀러가 다 그렇듯이 남이 터트려 놓은 다음에야 너무나도 쉬워 보이지만, 막상 그런 책을 찾으려면 정말 하나도 눈에 안 뜨인다는 거다.

《좀머 씨》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각광받은 작품은 아니었다. 그렇게 다른 출판사의 ‘희망계약 외서목록’에서 1순위에 오르는 영광의 시절이 찾아오기 전, 그 책에게도 잊혀진 시절, 또는 굴욕의 시절이 있었다. 사람들은 무지개 빛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른 하늘 아래 어느 호숫가를 바삐 걸어가는 좀머 씨의 모습이 박힌 ‘연분홍빛’ 재판본 표지로만 그 책을 기억한다. 반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져 이 세상으로부터 영영 달아나기 직전, 나무와 수풀 사이로 엿보이는 좀머 씨의 비장한 뒷모습이 박힌 ‘연보랏빛’ 초판본 표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 역시 이 책은 재판본을 먼저 봤고, 초판본은 나중에 어느 헌책방에서 발견했다. 판형이나 가격이나 본문 편집은 똑같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앞표지에 사용된 ‘삽화’다. 그 다음으로는 제목으로, 재판본의 명조체와 달리 초판본 제목은 마치 ‘타자기 글씨체’를 연상시킨다. 또 한 가지 차이는 출판사의 로고로, 초판본에는 삽화 밑에 들어 있지만 재판본에서는 슬쩍 빠져버렸다.

사실 이 책의 본문 삽화에서 좀머 씨의 모습은 결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는 매번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항상 멀찍이 배경 속에 녹아들어 있

● 이 글을 쓴 박중서는

에이전트와 출판사 등 출판계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지금은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는 《진틀 매드니스》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미국 최고의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이 있다.

다. 따라서 이 책에 나온 삽화에서 좀머 씨의 모습이 '단독'으로 나와 있는 삽화는 단 세 장뿐이고, 그 중 두 장이 이미 초판본과 재판본의 표지로 쓰인 것이다. 지금 판매 중인 '신판' 하드커버의 표지에 나온 좀머 씨의 모습만 해도 원래의 삽화에 있던 모습을 '따낸' 것이다. 즉 신판 23쪽에 나온 삽화에서,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타고 노는 아이들을 지나치는 좀머 씨의 모습을 가져와서, 그의 원래 진행 방향과는 반대('오른쪽에서 왼쪽으로')로 뒤집어 놓았다.

일설에 따르면 《좀머 씨》는 초판본의 '연보랏빛' 표지가 재판본의 '연분홍빛' 표지로 바뀌면서 판매량이 급상승했다고 한다. 출판계에 떠도는 이런저런 '일설' (一說)과 '이설' (異說)이 그렇듯이, 이것도 정말 그런지 어떤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후에 다른 출판사에서 "비슷한 책 내 놓으라"고 에이전트를 다투할 만큼은 분명한 아이콘이 되었다는 점이고, 또한 이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연분홍빛' 《좀머 씨》이지, 결코 '연보랏빛' 《좀머 씨》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나는 그때 출판사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 주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연분홍빛' 《좀머 씨》 같은 책을 찾아내려면 그런 책은 "없다"고 해야겠지만, '연보랏빛' 《좀머 씨》 같은 책, 그러니까 분명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고 두 번 세 번, 팔릴 때까지 재시도할 만한 책은 "있다"고 말이다. 그냥 갖다 번역해서 툭 내놓기만 하면 삼시간에 동이 날 물건, 쉽게 말해 '팔릴 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이다. 물론 출판사들의 급박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막상 남이 해 놓은 것은 뭐든지 쉽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남이 안 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남을 따라 편한 길 가겠다는 결과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싫었을 뿐이다.

《좀머 씨》는 지금도 꾸준히 판매되는 책이지만, 그 기세는 예전 같지 않은 듯하다. 워낙 유명해서 도리어 식상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이후에 같은 출판사에서 줄줄이 출간된 쥐스킨트의 소설이나 상패의 삽화집 때문에 이 책이 품고 있던 특유의 신비감이 사라졌기 때문인지도 모

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머 씨》는 좋은 소설이다. 흥미로운 성장소설인 동시에,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숨어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책에는 나름의 운명이 있다"는 격언에 잘 어울리는 특이한 이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내가 왕년의 베스트셀러이자 지금도 스테디셀러인 '연분홍빛' 《좀머 씨》보다도, 한때의 실패작이자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연보랏빛' 《좀머 씨》에 더욱 호감을 느끼는 것 역시 어쩌면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